

탄 원 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귀 재판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건의 피고인 박정훈 씨의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 탄원서를 보냅니다.

재판장께서 아시다시피 이미 병역거부로 수감 중인 박정훈 씨가 또 법정에 서게 만든 용산참사는 현대 한국사에 잔혹한 족적을 만든 참사입니다. 용산참사는 가난한 이들의 터전을 빼앗아 투기장으로 만들려 했던 잘못된 개발정책으로 인한 참사이며,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권 요구를 무작정 강경진압으로 짓누르려다 일어난 참사입니다. 그렇기에 용산참사 이후로 일방적인 재개발계획과 세입자들의 생존권 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되었으며, 정치권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용산 참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또 다른 참사를 막기 위한 입법 개선 움직임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용산참사 이후, 법정이 벌한 사람들은 용산참사의 책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생존이 박탈당한 철거민들, 공권력에 의해 가족을 잃었던 사람들뿐이었습니다. 가족이 공권력에 의해 죽은 유족을 구속했던 법정이, 오늘 또다시 벌하려 하는 것은 법이 지켜주지 않는 공간에서 법을 대신하여 그 유족들과 함께 울었던 사람입니다.

피고인 박정훈 씨는 지난 2013년 10월 병역거부를 하면서, 병역거부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용산참사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소견서를 통해 “용산에서 철거민들의 생존권을 건 시위를 무리하게 진압하다가 6명의 생명을 앗아간 김석기 전 경찰총장이 한국공항공사 신입사장후보로 올랐다. 청와대 지시로 쌍용자동차 노동자를 진압한 조현오씨가 경찰총장까지 올랐다. 반면 못살겠다 외치는 국민들은 구속자가 되거나 전과자가 됐다. (...) 이웃들이 죽어가는 공동체에서 홀로 평화롭게 살아가 수 없다. (...) 이러한 국가의 강제징집을 거부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평화행동이다.”라고 밝혔으며, 지금의 공권력에 복무하는 것은 어떠한 미사여구를 붙이더라도 결국 국민을 향한 국가 폭력에 동참하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박정훈 씨의 행위는 법과 양심이 대립하는 순간에, 양심을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박정훈 씨의 죄가 된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권력에 의해 사망한 가족의 시신을 돌려받겠다는 유족들에게 경찰은 옷이 다 젖을 정도로 최루액을 뿌리고, 영정들을 파손했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빼앗고, 그 시신마저 빼앗아가는 상황에서 박정훈 씨가 선택한 것은 본래 국가가 서야 할 곳, 그러니까 유족의 맞은 편이 아닌 유족의 옆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또한, 양심을 선택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판장님, 300명의 죽음을 불러온 세월호 참사가 준 충격이 아직 국민들의 마음에서 가시지지 않았습니다. 그 충격의 한쪽 면은 “국가가 나를 지켜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깨달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공공의 책무를 복원하고, 국민의 죽음을 허투루 보지 않는 국가를 체계적으로 만들자는 것이 세월호 특별법 논쟁의 본질입니다. 용산참사가 세상에 가져다 준 충격과 세월호 참사가 가져온 충격이 그 크기는 다를지언정 그 정체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법과 윤리가 분명 다른 층위의 것이라고는 하나, 양심이 피고인석에 서고 검사가 양심을 꾸짖으며 법이 양심을 벌하는 일이 이러한 시국에서 또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재판장님의 용기 있는 판단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양심과 생명의 소중함이 상식이 되는 사회를 바라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탄원 드립니다.

2014년 9월 일

주 소 :

소 속 :

이 름 : (서명)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재판부 귀중